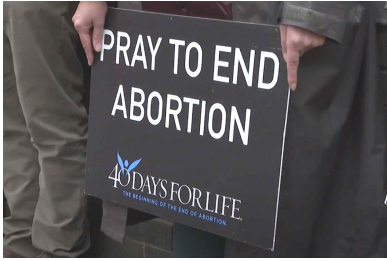


**“다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  
**스코틀랜드, 74세 낙태 반대 운동가 체포…“기도도 범죄”**



스코틀랜드의 낙태 클리닉 앞에서 기도회를 가진 74세 여성이 완충 구역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이 여성이 글래스고의 낙태 클리닉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회를 진행해 온 낙태 반대 단체의 일원으로 완충 구역 위반과 관련해 체포 및 기소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이 스코틀랜드의 낙태 반대 활동 탄압을 비판한 지 며칠 만에 발생했다. 밴스 부통령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지도자 회의에서 스코틀랜드의 완충구역(Buffer Zone) 법률을 언급하며, “지난해 10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안전 접근 구역’(Safe Access Zone)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거주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개인 주택에서 기도하는 행위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사상 범죄”(Thought Crime)라고 규정하며, 스코틀랜드가 시민들 간의 상호 감시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 정부 최고 지도자인 존 스위니는 밴스의 발언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사적인 기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에든버러 거주자들에게 발송된 공문에는 “보호된 시설과 해당 구역 경계 사이에 위치한 주택 같은 사적 장소에서 이뤄진 활동이라도, 해당 구역 내에서 볼 수 있거나 들릴 수 있고,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게 행해진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밴스의 발언을 옹호한 기독교 변증가 데이비드 로버트슨(David Robertson)은 자신의 칼럼에서 정부가 배포한 공식 문서를 근거로 “완충 구역 내에서는 사적 기도도 금지될 수 있다”며 “논리적으로, 완충 구역에서 기도가 금지된다면, 해당 구역 내의 개인 주택에서도 기도가 금지된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만약 커튼을 닫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체포되지 않겠지만, 만약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거나 소셜 미디어에 기도한다고 글을 올리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정확하며, 정치인들과 언론이 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낙태 반대 단체 ‘40일 생명을 위한 기도’(40 Days for Life)는 3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매일 글래스고의 낙태 클리닉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주도한 스코틀랜드 녹색당의원 길리언 매케이는 “‘40일 생명을 위한 기도’와 다른 낙태 반대 시위자들에게 경고한다”며 “그들은 저지당할 것이며, 그에 따른 법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다니엘 6:26)**

하나님, 기도를 범죄로 규정해,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 하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악한 시도를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교회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원수의 간계임을 깨닫고, 믿음의 간구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스코틀랜드의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움으로 돌이키게 하사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태국, 마약 성분 ‘좀비 전자담배’ 확산

태국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가 확산해 당국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연합뉴스가 27일 방콕포스트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태국 정부는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이른바 ‘좀비 담배’가 방콕 통로 등 유흥가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의학용으로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사용되며, 심한 졸음을 유발하고 호흡을 느리게 만들 수 있다. 또 저혈압, 메스꺼움 등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안콘 프루엣사 누삭 총리실 부대변인은 특히 10대 청소년이 좀비 담배를 비롯한 마약 성분 함유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정확한 성분이나 함유량을 알기 어려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에서는 전자담배 사용 자체가 불법이지만, 여전히 유흥가 주변 거리 등에서 손쉽게 전자담배를 살 수 있어, 정부가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이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잠언 8:5-6)**

하나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마약의 확산 속에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을 함유하여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려는 태국의 범죄 조직들을 파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악을 꾀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여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태국 정부가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에 종노릇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죄와 사망을 멸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밝아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을 섬기는 태국 되게 하여 주소서.

### ▲ 쿠르드 무장단체, 튀르키예와 40년 만에 휴전 선언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이 튀르키예와의 무장투쟁 40년 만에 휴전을 선언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PKK는 이날 성명에서 “지도자인 압둘라 외잘란이 요구한 평화와 민주사회로 향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발효되는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옥중에 있는 외잘란은 지난달 27일 친쿠르드 성향 튀르키예 야당인 ‘인민민주당(DEM)’을 통해 “모든 단체는 무기를 내려놓고 PKK는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며 무력투쟁 종단을 촉구했다. 이에 PKK는 휴전을 선언하며 튀르키예 정부에 외잘란을 석방해 무장 해제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조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78년 PKK를 창설한 외잘란은 1999년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종신형으로 감형받고 독방에 27년째 수감돼 있다. PKK는 쿠르드족이 다수인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독립·자치권을 요구하며 정부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여 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고린도후서 5:17-18)**

하나님, 쿠르드노동자당의 휴전 선언으로 튀르키예와 쿠르드족 간의 오랜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인 이때 주님의 화평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앞으로 풀어야 할 여러 문제 속에서 모든 갈등의 근원을 해결할 길은 십자가의 복음뿐이오니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먼저 예수 생명을 가진 몸 된 교회가 주께로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부르심에 기도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자에게 나타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 이슬람, 기독교인 여성 강제 개종 위해 새 전술



이집트에서 한 콥트 기독교 여학생이 실종되며 강제 개종 의혹이 제기됐다. 크리스천 데일리인턴셔널(CDI)에 따르면, 기독교 인권단체 콥트연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우트주의 한 학교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2년간 SNS를 이용해 기독교인 여학생 ‘아마니’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아마니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가족과 정서적으로 멀어지도록 유도했다. 이후 아마니가 이슬람 기관에 문의하자 즉시 개종 절차가 진행됐으며, 경찰과 보안 당국의 개입으로 가족과의 접촉이 차단됐다.

아마니는 지난해 6월 마지막 시험을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가족이 학교를 찾아갔지만, 출석 기록과 CCTV 영상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경찰이 개입한 후에야 그녀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마니의 여동생은 경찰이 협박해 그녀의 순결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짓 고백을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실종 경위를 왜곡하고 가족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가족의 집을 수색하며 아마니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통화를 차단하는 등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가족들은 그녀의 SNS에서 무슬림 친구들과 한 남성과의 대화 흔적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무슬림 여학생이 이슬람화 단체의 지도 아래 기독교인 친구를 개종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종 과정에서 정부 기관과 보안 당국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 실종이 아닌 조직적 강제 개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마니의 가족은 다시는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콥트연대는 강제 개종 및 실종이 이집트 콥트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무관심과 공무원들의 공모가 이러한 범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여성들이 자유의지로 개종했다고 보기에는 강압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이집트 정부는 강제 개종 및 실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학대에 맞서기 위해 콥트연대는 이집트의 미성년 결혼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신랑이 신부가 18세가 되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관습 결혼’을 허용하는 허점을 없애고, 이러한 범죄를 허용하는 성인 배우자와 입법자/정부 관리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기도24·365본부 종합).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편 50:22-23)**

하나님, 콥트 기독교 여학생의 실종 사건으로 무슬림들의 강제개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조차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이곳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려 진리를 막는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무슬림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거짓된 행위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사 돌이키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실종된 아마니가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교회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통로 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헝가리, '아동 보호' 위해 LGBT 행사 실내 개최

헝가리 정부가 '아동 보호'를 이유로 올해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엘지비티(LGBT) 프라이드 행사가 예년처럼 거리가 아닌 실내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최근 "프라이드 주최 측이 행사 준비에 노력하는 것은 돈과 시간 낭비"라고 발언했다. 이후 오르반 총리의 비서실장인 게르게이 굴야시는 헝가리 뉴스 24.hu와의 인터뷰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프라이드 행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집권 이후 기독교 보수주의 의제를 추진해 왔으며, 2021년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헝가리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으며, 오르반 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동성 커플의 입장을 제한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고린도전서 13:4,6)**

하나님, 나라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오르반 총리를 통해 헝가리의 아동들이 동성애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다음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인도하십시오. 이것이 기성세대들에게 비춤이 되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부끄러워 죄에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각 계층의 증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완성되시는 십자가 사랑을 더욱 심령에 새겨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 ▲ 나이지리아,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기독교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 등 '글로벌 사우스'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CR)'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개국'에 따르면, 글로벌 사우스에서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서구 국가들에서는 기독교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다. 나이지리아는 높은 출산율과 오순절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으며, 기독교 공동체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극단적 이슬람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2위는 중국이다. 정부의 종교 규제에도 중국 기독교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로 가정교회(지하교회) 증가와 도시 선교 확대를 꼽았다. 3-10위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에티오피아, 미국, 케냐, 대한민국 순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하나님, 점점 사회적, 문화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며 위협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 된 교회들을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들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자신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곳마다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모두가 들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초중고에서 종교 교육 담당할 기독교인 교사 부족해**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13%가 기독교인이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초중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교육을 담당할 기독교 교사의 수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KPK)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종교 교사의 비율은 8.5대 1로, 8-9개 학교에 1명만이 배치되고 있는 정도였다.

인도네시아 지역대표협의회(DPD RI)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펜라드 시아기안(Penrad Siagian) 목사는 어떤 학교에서는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종교 교사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 학생들이 기독교 종교 교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기독교종교교육교사포럼(FORGUPAKI)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토마스 뻬뚜리(Thomas Penturi) 박사도 종교 교육은 국가적 성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기독교 종교 교사의 수와 질을 높이는 데 있어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교육법상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육은 필수이며, 학생들은 자신의 종교에 따라 해당 종교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의 사히둘 바크리(Sahidul Bakhri) 국장은 기독교 교사가 없는 학교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모든 학생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에 따라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공립학교에 종교 교육을 담당할 기독교 교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확충되어 아동,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을 보유한 나라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 도어즈(Open Doors)에서 해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월드 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3년 기독교 박해지수 33위를 차지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본부 종합).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시편 25:4-5)**

하나님,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믿음의 교사들을 일시켜 주옵소서. 무슬림이 대부분인 이 나라에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인도네시아의 교회에게 응답하사, 이 땅에 진리의 교훈을 받아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는 다음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크리스천컨선 “영국 조력자살법 반대 위한 사순절 기도캠페인 시작”

영국의 기독교 법률센터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이 조력자살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사순절 기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CP)가 3일 보도했다. 크리스천컨선은 조력자살법이 취약한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기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1분간 기도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법안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제안된 법안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개정안을 거부했으며, 조력자살이 합법화되면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조기 사망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교회가 조력자살에 반대하여 기도하기 위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짧은 일일 기도를 공유해 참석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주간 라이브 방송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5일부터 크리스천컨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되며, 법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기도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영국 하원은 지난해 11월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출애굽기 22:23)

하나님, 영국 하원이 조력자살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를 막아서려 사순절 기간 기도캠페인을 연 단체를 축복하시고 열방의 교회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장애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자살을 부추기며, 생명의 주권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이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 기도운동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영국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 ▲ 인니 자카르타, 홍수로 1,000채 침수하고 1명 사망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최근 며칠간 폭우가 내리면서 1,000채 이상의 주택이 물에 잠기고, 3세 여자아이가 홍수로 인해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안타라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3일부터 자카르타와 위성도시인 보고르, 탕에랑, 브카시 등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에 따라 여러 강이 범람하며 최고 3미터 이상 물이 차올랐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국은 대피소를 마련하고 고무보트를 이용해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홍수 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위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침수 지역의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11일까지 추가 폭우가 예상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공강우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8일까지 서자바주 산악 지대에 인공강우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한 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수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3-4)

하나님, 자카르타에 내린 홍수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추가 폭우까지 예상되어 난국에 처한 인도네시아를 다스려 주소서. 주여,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조하여 주시고 이 땅에 가장 긴박한 상황은 복음에 대한 부재이오니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에 진리를 밝히 보이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 잃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한 증인의 고백처럼 주님이면 충분한 예수 교회로 이들을 세워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